

보리수나무



(학명 : *Elaeagnus umbellata*, 보리수나무과)

5월 초에 개최된 칠곡의 아까시아벌꿀 축제는 아까시아꽃 없이 끝났다. 지난 해는 아까시나무꽃이 4월말부터 피었으나, 금년에는 5월 10일경부터 피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금년이 늦은 것이 아니고, 금년이 정상이고 지난 해가 너무 빨랐던 것이다.

이번 달에 소개하는 보리수나무도 밀원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수목이다. 지난 달에 소개한 명자나무처럼 보리수나무도 대규모로 집단으로 심어진 곳이 없고, 정원에 몇 그루 혹은 얇은 산에 야생으로 몇 그루씩 있기 때문에 양봉인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수년간 관찰해 본 결과 아까시나무보다 개화기가 약간 빠르고, 한 나무

에 수십 마리의 꿀벌이 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백형수씨에 의하면 보리수나무는 5월 초순에 10일간 피며 화분의 색은 담황색이라고 한다.

보리수나무는 황해도 이남에 자라는 낙엽관목으로 일본, 중국, 일본에도 분포한다. 소지에 흔히 가시가 있다. 보리수나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잎 뒷면과 어린 가지에 은백색의 인모가 밀생하는 것이다. 비슷한 나무로 보리장나무(*E. glabra*), 보리밥나무(*E. macrophylla*), 뜰보리수(*E. multiflora*) 등이 있는데, 보리장나무는 남쪽섬에 자라는 상록만경이고, 보리밥나무는 학명에 나타나듯 잎이 길이 5-10cm, 너비 4-



〈보리수나무 개화 전경. 전정을 하여 이런 수형이 되었으나, 자연스럽게 자라면 수고 3~4m 정도 자란다.〉

6cm로 훨씬 크다. 보리장나무와 보리밥나무는 드물기도 하고 꽃이 10-11월에 피므로 밀원으로 이용 가치는 적을 듯하다. 뜰보리수는 일본 원산으로 열매가 길이 1.5cm 정도로 보리수나무보다 훨씬 크다. 개화기는 보리수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피므로 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꽃은 대구지역에서 4월 말에 피기 시작하여 5월초까지 약 보름간 피고, 그 다음에 산딸기가 피고 이어 아까시나무 꽃이 핀다. 꽃은 아주 연한 황백색이고, 꽃받침통은 길이 12mm 정도로 끝이 4개로 갈라진다. 수술은 4개, 암술은 한 개이고 암술대에 인모가 있다. 열매는 10~11월에 붉게 익으며, 역시 인모로 덮혀 있다. 열매는 먹을 수 있으며 달다.

번식법은 분주를 하거나, 삼목 또는 파종으로 가능하다. 보리수나무 큰 나무 주변에 어린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 보였으며, 삼목으로는 30% 정도의 발근율을 보였고, 과육을 제거한 후 파종하여도 40% 정도 발아하였다.

수관폭이 3m 가까운 보리수나무에 한번에 백마리 이상의 꿀벌이 모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리수나무는 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까시나무 개화 직전에 개화하므로 귀중한 밀원식물로 이용될 듯하다. 참고로 슈베르트의 가곡 '보리수'는 이 나무가 아니고, 피나무라고 한다.



〈보리수나무 발아. 과육을 제거한 후 파종하면 40% 정도 발아하였고, 삼목을 하여도 30% 정도 발근이 되어 번식은 쉬운 편이다.〉



〈보리수나무 꽃. 꽃은 굉장히 많이 피나, 꽃의 크기가 크지 않고, 꽃의 색이 아주 연한 황색이므로 눈에 확 띄이지는 않는다.〉



〈보리수나무 열매. 이 열매는 먹을 수 있다.〉